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2016년 의무기록 우수부서 시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무기록실은 지난 5일 EMR 위원회에서 선정된 의무기록 작성이 우수한 진료과와 전공의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시상식에는 2016년 의무기록 우수과로 재활의학과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수의는 내과 전공의, 비뇨기와 전공의, 신경과 전공의, 침구과 전공의, 한방내과 전공의가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과는 표창장과 상금 50만 원, 우수의는 표창장과 상금 20만 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EMR 위원회는 한해 동안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의무기록 작성에 힘써 주신 진료부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환자안전과 의무기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전국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공로상 수상

동국대일산병원 감염관리실은 지난 11월 ‘전국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워크숍에서 공로상을 수상 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책 연구용역사업인 ‘중환자실 의료관련 감염감시’에 동참해 정확한 의료관련 감염 감시에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195개 참여 병원 중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전국의료관련 감시체계(KONIS)는 전국의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감시를 수행하는 감시체계이다. KONIS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의료관련 감염이 20% 이상 발생했고 이중 1/3이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경험했다. 특히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률이 40%가 넘기 때문에 중환자실 감염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건진운영팀 보건관리 전문기관소속 직원들은 지난 1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주최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본 발표대회에서는 2016년 최초로 실시한 보건관리 전문기관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를 했으며, 각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및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또한, 각 기관별 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상이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표준업무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기관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표준업무 지침이 완성되는 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스마트 Tip⁺

헌혈과 혈액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헌혈자의 신원 확인, 채혈 금지 대상자의 관리 등을 위해 헌혈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혈액관리법 및 시행령)에 헌혈·헌혈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 준비, 시작해요!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확인사항으로 맞벌이 부부 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맞벌이 부부 근로자란 부부가 모든 총 급여 500만 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말합니다.

하나.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 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면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 또한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부양가족을 나누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객의 소리

“환자의 마음을 사랑으로 품는 동국대병원”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병환으로 동국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 중에 만난 김다라 간호사님! 적극적인 태도와 언제나 웃는 얼굴로 환자가족에게 불안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여러 번의 질문에도 언제나 친절한 설명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소극적인 다른 간호사들과 다르게 진심으로 환자와 보호자와의 소통을 할 줄 아는 김다라 간호사님이 동국대학교병원에 많아지길 바라며 칭찬의 글을 남깁니다. 의사, 간호사가 질병 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사랑으로 품는 동국대병원의 의료진 모두가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